

[목회실에서]

“알 수 없는 그대에 우리도...”

We will also... in an unknown time

김영훈 목사

지난 수요일 오후, 우영숙 집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우영숙 집사님은 금요일(24 일) 오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셨습니다.

This is what I thought on my way back after a farewell service for late deaconess Wu, Youngsook last Wednesday afternoon. She returned to an eternal resting place God prepared on September 24 afternoon.

최근 2 년 사이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경화 집사님과 임종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집사님이 계시던 곳이 봉쇄되어서 facetime 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There was the most heartache moment in last two years. It was when we offered a farewell service for late deacon Lee, Kyunghwa. Due to the pandemic, the residence he stayed was sealed off, so that we had to offer the service through Facetime. We all felt so awkward, but we praised, prayed together with him and wept so much.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교인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숨을 몰아 쉴 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잡고 곁에서 기도로 응원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항상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붙잡고 최후 승리하시기를... 마지막까지 큰 고통없으시기를...”

As a pastor I've often observed church members fighting hard at the end of their lives. When they were out of breath, I held their hands with a heartache and cheered by their side with prayers. At such moments I always had such eagerness in my heart. "I hope you hold onto faith believing in Jesus Christ till the end and have a victory in the end... I hope you don't suffer much till the end..."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건강에 대한 문제, 생활에 대한 문제, 그 어느 것 하나도 간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영원한 쉼이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마지막 시간임을 아는 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At such moment, there is nothing desperate, no health issue, no life issue, whatsoever. There is nothing other than having a victory with faith and resting at God's embrace where an eternal rest exists. It would be the same to them who know it is the last moment in this world.

때로는 갑자기 맞이한 죽음의 문턱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일찍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 때론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임을 알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Sometimes I met them on the threshold of sudden death, or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y lay on the bed too early. Every time that happened, my heart was broken, and I asked God. "Why did you do that?" Of course, there was no answer. He already said, "You have to know it is life."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끝자락, 그곳은 그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이며,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에,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지혜를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90:12). 그 지혜의 마음을 얻어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 오늘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Dear beloved church members, I think the end of life is ours as well as theirs, and is not when we can choose. We will be there at the appointed time by Him, or at an unknown time. I hope I want to learn the wisdom of Moses.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Psalms 90:12) I hope you gain a heart of wisdom, do your best in today's life and walk on the path of faith today.

